

Philemon
Tape # C2620
By Chuck Smith

Tonight let's turn to Philemon. Philemon was written by Paul the apostle unto the man whose name is Philemon who lived in Colossi. This letter was written at the same time that Paul wrote the Colossian epistle. When Paul wrote the Colossian epistle, he made mention that he was sending the letter with Tychicus, and that also Onesimus, who was one of their own, would be coming with Tychicus with the epistle. The letter of Philemon involves this man Onesimus, for Onesimus was at one time a slave of Philemon, who had evidently stolen some money and had run away. Now Paul is returning him with this epistle in which Paul is interceding for Onesimus, that Philemon might receive him no longer as a slave but as a brother in Christ.

오늘은 빌레몬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에게 쓴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낸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함께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관련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한 때 빌레몬의 노예였으나 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써 받아달라는 부탁을 이 편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Paul's prison epistles. And in it Paul not only asks Philemon to be merciful and gracious unto Onesimus, but also to be preparing a place for Paul to stay, for Paul is expecting to be released soon from prison, which he was released from that first imprisonment, later re-arrested and then executed.

이 서신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풀려난 후에 머물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So,

Paul, a prisoner of Jesus Christ (1:1),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The Bible tells us “whatsoever we do in word or deed, we should do all to the glory of God” (I Corinthians 10:31). Paul in his service was a servant of Jesus Christ. As a servant of Jesus Christ, his life was totally committed to the cause of Jesus Christ. So whatever happened to him, he did not look upon it personally but as unto the Lord and for the Lord’s sake.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든지 그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I think a lot of times we Christians get out of sorts because we are prone to personalize the reproach that comes on us for the cause of Jesus Christ. If while I am sharing my faith in Jesus Christ, or my love for the Lord with someone and they get upset with me and tell me that I’m a nut and things of this nature, I am prone to personalize the remarks, rather than realize that the animosity that they feel is not really directed towards me, it’s directed towards the Lord that I represent. And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we make that distinction in our mind, that so oftentimes the reproach we bear is the reproach of Christ.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는 비난들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비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화를 낼 때, 저는 그들의 증오가 나에게 대한 공격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라는 것을 깨닫기 보다는 이것을 나에게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난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So that when in the early church they were beaten and told not to preach anymore in the name of Jesus, they rejoiced that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for Jesus Christ. And Paul talks about the many sufferings that he endured as filling up the afflictions of Christ. So here he sees himself, interestingly enough, not as a prisoner of Rome. **Rome can’t hold Paul nor can it hold back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Paul’s life.** “I’m a prisoner of Jesus Christ.” And when you see things that way, it puts a whole different light on our experiences. I can

endure; I can accept it when I realize that it is for the Lord and in His name and for His cause that I am experiencing these things.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도록 협박당하고 매를 맞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그 자신을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라 할찌라도 참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Paul when he talked to the Ephesians there at Miletus there on the beach, he spoke to them how that he was with them serving the Lord. And we need to realize that the Lord is our Master, we are serving Him. Whatever befalls us, befalls us for His sake and for His glory and that really we are His servants, and thus the results of our service are also because of that service. So I'm a prisoner of Jesus Christ.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인사를 말하며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있으며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과 우리는 그 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종들이며 모든 것은 그 분을 섬기는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들입니다.

and Timothy our brother (1:1),

“ 형제 디모데”

Now when Paul wrote the Colossian epistle, he also joined Timothy's name with his, for Timothy was well known to the church in Colossi. He had been there with Paul ministering. It is also interesting as we complete the letter, Marcus, Aristarchus, Demas, Lucas, Paul said, “My fellow laborers”. These are the same men that Paul joins in his salutation in the Colossian epistle. So we know that they were both written at the same time.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도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골로새교회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형제로써 말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들이 골로새서의 서문에도 역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두 서신서가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y the time Paul wrote his second letter to Timothy in his second imprisonment, he said, "All of those from Asia have forsaken me" (2 Timothy 1:15), "Demas has forsaken me, having loved the present world" (2 Timothy 4:10), and so forth. So here with the epistle to Colossi, the same name that Paul joins with his in the closing salutation are joined in this epistle to Philemon. So he joins Timothy in the beginning as a greeting from Paul, and then also in the final salutation joins the same ones that he joins in the Colossian epistle. "To Timothy our brother,"

바울의 두번째 투옥 때 쓴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딤후 1:15)과 "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딤후 4:10)라고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마지막 문안에 나왔던 형제들의 이름이 똑같이 빌레몬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디모데를 골로새서의 마지막 문안인사에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빌레몬서의 서두에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디모데.

unto Philemon our dearly beloved, and fellowlabourer, and to our beloved Apphia (1:1-2),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압비아"

Now Apphia was probably Philemon's wife. It is a feminine name and so it is probably the wife of Philemon that Paul is also greeting here at the beginning of the epistle.

압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집니다. 압비아는 여자의 이름으로써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일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인사말에서 빌레몬의 아내에게도 문안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and Archippus (1:2)

" 아킵보"

Now there are some commentaries that suggest that Archippus was the son of Philemon and that he was in the ministry. Paul speaks of Archippus as being

a fellowsoldier (1:2),

And that was a phrase that was used of those who were also ministering together in the Gospel. And so the greeting probably to the household of Philemon, his wife Apphia, and his son Archippus.

주석가들은 아킵보가 빌레몬의 아들이었으며, 목회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 절을 보면 바울이 아킵보를 우리와 함께 된 군사라고 부르고 있는 데 보통 복음서에게 “군사”라는 말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압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킵보에게 문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and to the church that is in your house (1:2):

“네 집에 있는 교회”

So at least Philemon had a home Bible study going in Colossi and there was a letter sent to the entire church of Colossi, but Paul here greets the church that is in his house. Or the word here is “eklesia,” the assembly or those that are assembling in your house. In the early church they did not have church buildings. Quite often they met in homes and it was not at all uncommon to have a church within your house. And the church in its simplest form was constituted by two or three people gathering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And Jesus said He would honor such a gathering.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Matthew 18:20). And so Philemon had a church or a fellowship, a home Bible study going in his own house.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가정성경 공부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전체 교회에게도 서신을 보냈지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따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너의 집에서 모이는 무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따로 교회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자주 모였으며 집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 장 20 절의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두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자기의 집에 교회 또는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the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1:3).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So the typical Pauline greeting, “the grace, and the peace coupled together, from God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바울의 전형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I thank my God, making mention of thee always in my prayers (1: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

The men that God uses are men of prayer, among other things, and it is interesting how often Paul makes references to his own personal prayer life. For in each of the epistles, he makes mention how that he is praying for them continually. And in some of them, how he is interceding for them night and day. Paul’s life was a life of prayer, constantly in prayer, for Paul realized the power of prayer. You see, here was Paul imprisoned in Rome. Sitting there, as they believed, in the Mamartine prison, chained to a Roman guard. Rome could not stop the witness of Jesus Christ. For Paul through prayer was continuing his work in all of the churches that he had established as he prayed for them.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흥미롭게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기도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신서에서 그는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쓰는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힌 처지였습니다. 아마도 감시하는 군병에 죄사슬로 묶인 채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You se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prayer is that it is not bound to locality as his service. We think that serving the Lord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can do. More important than service is prayer because

there are times when through uncontrolled circumstances, our service must be limited. I mean if you're sitting there in a jail cell and you're chained to a Roman guard, your service is going to be quite restricted. But they could not restrict the power of Paul's prayers.

기도는 지역에 매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겨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봉사하는 일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분이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군병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And so he has continued to exercise a very dynamic and powerful ministry in prayer, as through prayer he went around to the various churches and to the various individuals mentioning them by name. And here he speaks of how he is mentioning Philemon always in his prayers. And so Paul had, no doubt, a very extensive prayer list as he prayed for the churches, the specific churches, and then as he prayed for those leaders within the churches by name, holding them up before the Lord. And so the tremendous power of prayer as he sat there in his jail cell, he was going out through prayer around the provinces of Asia, on into Greece, on back to Jerusalem and doing a work for God while confined in that prison cell.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방문하였던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강력한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가 늘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들을 위한 광범위한 기도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와중에서도 거대한 기도의 능력으로 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Paul said,

Hearing of the love and the faith, which you have toward the Lord Jesus, and toward all the saints (1: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So Philemon was a blessed brother in Christ, one for whom Paul gave thanks because Paul heard of the love that Philemon had and of the faith that was demonstrated towards all the saints in the communication of his faith. Paul in the next verse speaks of the communication of this faith, which is faith in action. **He demonstrated his faith to the church by what he did for the church and what he gave to those in the church and to those in need.**

빌레몬은 그리스도안에서 축복된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였습니다. 다음 절에게 바울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의 교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빌레몬은 교회를 섬기는 행함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As James said, “You say you have faith: [well] you show me your works and I will show you your faith” (James 2:18). And so Paul speaks of the faith that Philemon has that is actually proven or demonstrated in the fact that he is sharing with the church.

야고보서 2 장 18 절에서 야고보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또한 빌레몬이 교회에서 나눔으로써 보여준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The word translated “communication” here is that Greek word “koinonia” which actually means the fellowship or the sharing, one, the sharing of what one has with others, the mutual sharing. Now Philemon probably was a very wealthy man, the fact that he had slaves. But he was also one who was willing to share what he had with others who didn’t have, and thus it was a demonstration of his true faith.

여기서 “교제”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교제 또는 나눔, 즉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상호적인 나눔을 말합니다. 빌레몬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서 아마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자기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과 기꺼이 나눔으로써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That the communication [or the koinonia, the fellowship or the sharing] of your faith may become effectual by the acknowledging of every good thing which is in you in Christ Jesus (1: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So that work of Jesus Christ within his life was demonstrated by his life, and a life of love, and a life of sharing with those within the body of Christ.

빌레몬의 삶, 사랑의 삶, 그리스도의 지체 속에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통하여 그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For we have great joy and consolation in thy love, because the bowels of the saints are refreshed by thee, brother (1:7).

“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And so Paul really rejoiced in the witness of this man's life and in the work of God within his life that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works that he did.

바울은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의 증인된 삶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Wherefore, though I might be very bold in Christ to enjoin thee that which is convenient [or fitting], yet for love's sake I would rather beseech thee (1:8-9),

“ 이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Now Paul was the apostle, he had the authority as an apostle to enjoin or to order a person to do a particular thing. And though Paul said, I could enjoin you. I could order you to do this, I'm not going to order you, I'm going to beg you. I'm beseeching you.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명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하지 않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at the Gentiles loved to exercise lordship. They loved to rule over people. They loved to show their authority. But he said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For whoever would be the chief among you, let him become the servant of all.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은 권위를 사용하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And so here is Paul. He has authority as an apostle. Rather than coming on heavy with authority and saying, Now, Philemon, this is what I'm commanding you to do, he said, "I'm begging you to do this, Philemon". He's appealing really to the love that he knows Philemon has, to the compassion that this man has demonstrated. And how much better it is when someone comes appealing to the higher nature of love.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명령을 하는 대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레몬!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하는 대신, "빌레몬 형제.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층 높은 차원인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Now there are some who aren't moved much by love, and so the Bible says you got to save some by fear. And of course, some preachers really take that scripture to heart and they dangle people over the pit of hell every Sunday, in order that they might save some by fear. But there is another scripture that says, Don't you realize that it is "the goodness of God that brings a man to repentance" (Romans 2:4).

물론 사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매주일 설교 때마다 지옥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구절은 우리에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라고 말합니다.

Now some are saved by fear, but that is a base motivation. Paul said it's the love of Christ that constrains me. Drawn by the love of Christ, higher motivation. And so he chooses to appeal to the higher motivation, begging him because of the love that he knows he possesses. "Wherefore, though I might be

very bold in Christ to order thee to do that which is right or fitting, yet for love's sake I would rather beseech thee."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동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한 차원 더 높은 동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 차원 높은 동기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간구하노니"(8-9 절)

being such a one as Paul the aged (1:9),

"나이 많은 나 바울은"

How old was Paul? Paul at this point was probably in his late fifties or early sixties, but he had endured such hardship for the cause of Christ that his body was a wreck. And he spoke of his oft sicknesses many times. And so though he was only around sixty, he speaks of himself as the aged.

바울은 몇 살이었을까요? 빌레몬서를 서술할 때 바울의 나이는 50 대 후반에서 60 대 초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역경을 겪어야 했기에 그의 육체는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60 살 즈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나이 많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nd now also a prisoner of Jesus Christ (1:9).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Again, not acknowledging a prisoner of Rome, but a prisoner of Jesus Christ.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And I beseech thee for my son Onesimus, whom I have begotten in my bonds (1: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Now in the Greek text, the word Onesimus comes at the end of this sentence. So Paul in the Greek text said, "I beseech thee for my son whom I have begotten in my bonds, Onesimus." Now Onesimus was probably a name that had a strong reaction in Philemon's heart and mind. He had been a slave. He evidently had stolen some money before he ran away. And Philemon was

probably extremely upset over this, as you would be if someone that you had in your household that you trusted and all would suddenly take some money and run off.

성경원문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단어는 문장의 제일 끝에 나옵니다. 바울은 성경원문에서 “네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빌레몬의 마음속에 강한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는 한 때 빌레몬의 노예였고 그의 돈을 훔쳐서 도주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굉장히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하던 가족들 중의 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훔쳐서 도주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빌레몬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en we were living in Huntington Beach, there was a little old man that came by and needing some help, and he was sort of a transient but our hearts went out to him. And so we fixed up a place for him to stay and we fed him and took care of him and gave him some money. And we came home one day and found that he was gone and my power tools were also missing. Now for several months you mention that man's name to me and my blood boiled. I mean, I would have loved to have gotten hold of that fellow again. That was the best body grinder and my tools were just, you know, I really, they were tools that I had inherited from my brother when he was killed in a plane crash and I always had been a craftsman and loved working with tools. **I couldn't afford them myself but when I got them, you know, I really prized them and cherished them and to have this guy rip off my power -- after we had done these kindnesses to him, shown him nothing but kindness and yet he turns around and rips -- oh man, I'll tell you.**

저희 가족이 헌팅턴 비치 동네 쪽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나이든 노인 분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떠돌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그 노인네를 생각해서 집 한켠에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보살펴 주었으며 약간의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가 집에 돌아 왔을 때 우리 가족은 그 노인네가 사라졌으며 제가 너무나도 아끼던 연장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연삭기였으며, 더구나 그것은 비행기 사고로 죽은 동생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비싼 물건인지라 그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동생이 사고로 죽고 난 후 그 연장을 물려받았을 때, 저는 정말

그 물건을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가 그만 그것을 훔쳐간 것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노인네를 사랑해서 친절을 베풀고 잘 대해주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도둑질이었습니다. 그 때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And so Philemon probably had this same kind of reaction anytime you mentioned the name Onesimus, **he's, "Oh boy, if I could just get my hands on that fellow", you know.** And so Paul is careful not to mention his name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I beseech you for my son, whom I have begotten in my bonds, Onesimus. So he cushions the name by indicating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is fellow, that change that always takes place when one comes to know the power of Jesus Christ within their life. And Paul goes on to speak of the change that transpired in the life of Onesimus, but he calls him my son, begotten in my bonds,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장의 서두에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오네시모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간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완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which in time past [he said] was to thee unprofitable, but now he is profitable to you and to me (1:11):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Now I want to beseech you for this young man. I know he was unprofitable. I know what he did, but he has changed. He is now very profitable to me and also to you.

“이제 이 젊은이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노라.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노라.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제 변하였다. 그는 이제 내게 아주 유익한 자가 되었노라.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라”

And I am sending him again: and I am asking you to receive him, that is, he who has been begotten from me (1:12):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Whom I would have retained with me, that in thy stead he might have ministered unto me in the bonds of the gospel (1:13):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Now I know Philemon you would like to be here to be ministered to me, because of these bonds. Paul still had a great work to do, but he would send those on errands. He was bound by a chain to the prison guard. But he was having them write letters for him. He was sending them out on missions and errands. And he said, I know Philemon that you would like to be here helping me in this condition, but he's been here representing you, doing the work that you would like to be doing for me while I am here in these bonds.

빌레몬은 로마로 와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심복들을 사명지로 보내기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간수에 사슬에 묶여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복들을 통하여 서신들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제 그들의 손에 이 서신을 들려 선교 사명지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이여. 네가 여기에 있어 나를 섬기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노라. 그러나 오네시모가 네 대신 나를 섬기고 있노라. 갇힌 중에 있는 나를 위하여 네가 하고자 원하는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노라”

Onesimus being a slave, of course, had that miserable lot in life of a slave. One of the most horrible and heinous things that man could ever do to his fellow man is to bring one into slavery. My heart goes out to those people who have become the slaves of the state in the communist country. One of the greatest evils of a man is the oppression of a fellow man.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비참한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흉칙한 일 중의 하나는 그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극악한 죄 중의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압제입니다.

In the Roman empire slavery was in deed a horrible crime against humanity. During the time that Paul wrote this epistle there were sixty million

slaves in the Roman empire. There was always the fear that these sixty million people may rise up in mass, and it was always a constant threat to the Roman Empire. And thus whenever a slave showed any sign of rebellion, such as running away, he was dealt with extremely severely. Usually he was put to death in order to create fear in the hearts of the rest of the slaves, that this is what happens if you dare to rebel against the authority. The least thing that would happen would be an "F" branded into the forehead with a hot branding iron to create the scar so that always he would have the mark of the "fugitivos," that of a fugitive, the mark of the runaway slave.

로마제국의 노예제도는 실로 인류에 대한 가장 무서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제국에는 60 만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시대에는 이 60 만 명의 노예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끊임없이 로마제국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을 치려는 반역의 기미를 보이면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역을 한 노예는 다른 노예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너희가 만일 권위에 불복종하다가는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무언의 본보기였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더라도 노예에게 가해지는 최소한의 형벌은 도망친 노예의 이마에 “도망자”라는 표시를 인두로 찍는 것이었습니다.

A slave had no rights, no rights of ownership, no rights of any kind. There was no one a slave could appeal to. If you were beaten, if you were robbed, whatever, you couldn't appeal to anybody. There was no authority to protect you as a slave. Your master had the sole and complete authority over your existence, which he had the right to terminate at any time he desired. Any time he wanted to, he could kill you and he would not have to answer to any charges. Slaves were often beaten, kept in the most miserable condition by sadists who delighted in torturing them. A miserable lot in deed. Of course, those who were masters were enjoined by Paul in the Ephesian epistle how to treat their slaves with kindness and love.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소유권도 없었고 일체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어디에 호소할 곳 또한 없었습니다. 노예가 맞거나 어떠한 일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를 보호하여 주는 공권력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인만이 주인이 원할 때 제거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주인이 원하면 노예를 죽일수 있었고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자주 두드려 맞고 살았습니다. 괴롭히기를 즐기는 가학적인 주인을 만나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했듯이 노예를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주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But with Philemon, Paul is making an appeal now. Philemon could if he desired put Onesimus to death. He should have branded him according to the customs with the "F" in his forehead. But Paul is saying, I want you to receive him. I would have retained him with me that in your stead, in your place he might be ministering to me here in my bonds, but without your permission I would do nothing that you benefit should not be as it were of necessity but willing.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례에 따라서 오네시모의 이마에 "F(도망자)"라는 인두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접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God does not want anything we do for Him or give to Him to be given out of necessity or out of pressure. God never uses pressure tactics on man. Now man often uses pressure tactics. I get some extremely high pressured letters filled with hype from a lot of these evangelists who would have me to believe that God is broke. And they are telling me how much money to send and to send it immediately. And even suggesting that if I don't have it immediately available to go down to the bank and borrow it and send it to them to bail God out of the jam that he is in, because He overspent again last month. Pressure.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또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이라는 방법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과장이 섞인 아주 부담스러운 편지들을 받습니다. 그 편지들은 하나님은 무일푼이라고 나를 믿게 만드는 전도자들에게서 온 편지들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얼마의 돈이 급하게 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만일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은행에 가서 빨리 돈을 빌려 파산지경에 빠진 하나님을 건져내야 한다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과도하게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일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편지들입니다.

Paul said I don't want to receive anything from you by necessity by pressure, by manipulation. Now I would have liked to have kept him with me, but I wouldn't do it unless you gave your permission, because I want what is done; though he would have been very helpful to me. I want what you do to me not to be out of pressure, not out of necessity. I want you to do it willingly. And so Paul talking about our giving in his Corinthian epistle said it shouldn't be of necessity, of pressure, but every man should purpose and so let him give, for God loves a cheerful, or in the Greek, a "hilarious" giver. So what you can give to God hilariously give, but what you can't give hilariously keep. It is better that you keep it than to give it to God grudgingly. God doesn't want anything done in a grudging way.

반면 사도바울은 어떤 것이라도 부담이나 억지에 의해서 받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내게 참으로 유용하였던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기를 원하지만 그대의 허락없이는 하지 않으려 하노라. 어떤 것이라도 부담이나 억지로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대가 자의로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연보에 대하여 말하면서 연보는 부담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또는 유쾌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즐겨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즐겨낼 것이요, 즐겨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투덜대면서 낼 것이라면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하며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Now I can understand that I don't want people to do things in a grudging way. I have had people give stuff to me and then I heard that they were going around grudging about what they give. I take it back and say, Hey I really don't need this. Take it back. Oh no, it's -- No, I won't keep it. You don't want people to gripe. If they want to give because they love you, great, but if they are going to gripe about it and begrudge what they have given then I'd rather they not give. That is why when this fellow that gave us the house in Hawaii, he came up to us and said I would like my house back. We gave it back to him. I don't want anything that a person has remorse afterwards that he has done it. And the same with God.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저에게 무언가를 선물해 놓고서는 나중에 뒤에서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받은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정말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가져 가세요." "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쥐어 짜듯이 무언가를 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그에게 무언가를 드린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쥐어짜듯이 억지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하와이에 집을 한 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집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선물을 주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want to serve the Lord, serve Him with a joyful, happy, willing heart. If you want to give to God, give with a joyful, happy, willing heart. And if you can't give with a joyful, happy, willing heart, don't give. Better not to give because you're not going to get any reward for it anyhow. You give to God and you say, Oh, here You are, God, and you give something to God and you go around griping about it, God just marks it off. Just as though you hadn't given it. You won't get any credit for it, so you might as well keep it.

하나님은 섬기고 싶으시다면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면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부터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러 놓고서는 나중에 뒤돌아서 아까와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치십니다. 아예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점수도 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So Paul, I would like to have kept him with me, he was really a blessing, a benefit to me.

But I wouldn't do it without your permission; because I want this benefit to me, not to come as a pressure or a necessity, but willingly (1:14).

I want you if -- I want it to be from your heart. You willingly doing it.

For perhaps he therefore departed for a season, that you should receive him for ever (1:15);

Now we don't know what God is working out so many times in our lives when we have disappointments. When Onesimus took the money and split, Philemon was no doubt very upset. And he probably was saying, Why would God allow him to rip me off like that and take off? Why would God allow this to happen and all?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너무나 유익하였던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러 두기를 원하였지만,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1:14)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마음으로부터 나온, 네가 진실로 원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15 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실망하였던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때가 얼마나 많으신지요.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을 때, 빌레몬은 분명 너무나 분개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녀석이 돈을 훔쳐서 도망가도록 허락하셨을까?”라고 의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And Paul says, look, you don't know. Maybe this was all a part of God's plan to reach Onesimus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Maybe you lost him for a little bit that you might gain him forever. For it was while he was in Rome that he came to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Now he's a brother in Christ, an eternal brother in Christ. So you lost him for a moment but you gained him forever. He's now an eternal brother in the bond of Jesus Christ.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이다. 빌레몬이여 그대는 그를 잠깐 동안 잃어버렸지만 이제 영원히 그를 얻게 된 것이다. 오네시모가 잠시 로마에 있는 동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노라.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대의 형제가 되었다. 그대는 잠깐 그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영원히 그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된 형제가 되었노라”.

An interesting thing, during the hippie counterculture revolution, thousands upon thousands of young people left home. Many of them ran away from home. And the parents were so upset and disturbed their children had ran

away from home. Well, many of them in their searching found Jesus Christ as the answer for their quest of life. And their parents lost them for a little while but they gained them as eternal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God did the work in their heart.

히피 문화가 미국을 휩쓸 무렵에 수 천 수만의 젊은이들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망치듯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을 뛰쳐 나간 것에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던 중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잠깐 동안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형제와 자매로서 그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Sometimes a husband or a wife leaves. And there is such sorrow and grief. But you don't know what God is working out. You don't know, but what maybe they've left for a season that God might do an eternal work within their lives and bring things together as He wants them to be.

때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집을 뛰쳐 나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일을 해 행하시어 결국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가 되어 나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It is important that we learn to just commit our ways unto the Lord, every situation. Well, Lord, You're in control. My life belongs to you. And I know, Lord, that You are controlling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 my life. And so work out Your plan and rather than getting all upset, rather than fretting, getting angry and all, it's best that we just commit it to the Lord and say, Well, Lord, You're in control and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but I just trust You, Lord. Now that is where faith comes in.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장하시옵소서.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나이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당신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지금은 당신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If I only can believe God when I can see what He's doing, when I can understand His work, that isn't faith and that doesn't take any faith. What takes faith is to have that rest and confidence when things seem to be going completely against me. But they oftentimes only seem to be going completely against me as when Jacob said, "All things are against me". Why did he cry that? Because he didn't see everything. He said all things but he was wrong. All things weren't against him. If he only knew the truth, some of the greatest, most happy moments of his life were just around the corner. That fellow down there in Egypt that seems to be so mean and hard is in reality his son Joseph who he has bereaved for so many years and he's going to soon discover that his son is alive and he's going to be embracing Joseph again. He doesn't know the whole picture. He only sees a part of it and he cries out in dismay.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 때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는 믿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되어지는 일이 철저하게 나를 배신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흐를 때에도 평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때로 야곱이 한탄하였던 것처럼 모든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한탄하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코너만 돌게 되면 그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야박하고 무섭게 굴던 애굽의 총리가 바로 수년 동안 죽었다고 여겨졌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곧 자신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전체 그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의 한 부분만을 보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뿐입니다.

And we, so often, seeing just a part of the picture cry out in dismay. All things are against me. Oh, no, no, no, you don't know the full cycle. You don't know the full story. You don't know what God is working out. Just wait, trust in the Lord, rest in Him and let God work it out and you'll see that God's plan was far wiser than anything you could have devised as He began to put together that eternal work in the hearts and the lives of your friends or in your own heart and life as you learn to trust in Him more completely. It is so important that we learn to just commit things unto the Lord, even those things that seem to be against us.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부분적인 그림만을 보며 절망 속에서 한탄합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흐른다고 한탄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큰 흐름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야기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의 영혼 속에, 또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인생 속에 영원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And so Paul's rationale is a very reasonable rationale, looking at the consequences of Onesimus' running away. The consequence was that he came to Jesus Christ and became a brother in Christ and will share eternity now together with Philemon. The end result is that he has become now a profitable person who was once unprofitable. And so I want you to receive him, Paul said.

Not now as a slave (1:16),

Paul is asking Philemon to release him from this obligation of a slave.

but above a slave (1:16),

I want you to receive him as

*a beloved brother, especially to me, but how much more unto you,
both in the flesh, and in the Lord (1:16)?*

So Paul is asking for more than just forgiveness for Onesimus, he's asking for a total pardon even from the slavery that he once endured. I want you to receive him, not as a slave anymore, more than a slave. I want you to receive him as a beloved brother. Release him from that slavery.

오네시모의 도망이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본다면 바울의 논리가 정말 합리적인 논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 이제 빌레몬과 영원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이제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닌”(16 절) 존재로 영접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인 네게랴” (16 절)

그러므로 바울은 오네시모의 지난 과오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 이상의 존재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여 주기를, 노예신분으로부터 해방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If you count me therefore a friend (1:17),

A co-laborer. I want you to

receive him as myself (1:17).

That you would treat him with the same kindness that you would treat me and have treated me. The same love, that you would do for him the things that you've done for me.

If he has wronged you, or owes you anything, put that on my account (1:18);

You just charge it to me.

For I Paul have written it with my own hand, I will repay it (1:19):

And here we have Paul the intercessor, interceding with Philemon concerning this unprofitable slave who has now been converted to Jesus Christ, asking his release and release from slavery, to be received as a brother, to be received even above that as Paul himself. And to be forgiven any debt that he owes or at least that debt to be charged to Paul. Paul promises he'll reimburse. "I will pay". That's intercession.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찼대”

그대와 나는 동역자입니다. 그대가 오네시모를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여 주기를 구하노라. (17 절)

만일 그대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을 그 친절과 관대함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내게로 회계하라.

19 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노라”

바울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한 때는 무익한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익하게 된 한 형제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노예신분으로부터 풀어주고 이제 한 형제로서, 아니 마치 바울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그를 영접하여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빛을 지고 있다면 그 빛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책임지고 되갚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Now the Bible says that Jesus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seeing he ever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us” (Hebrews 7:25). Isaiah prophesied that he would mak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Paul in Romans eight says, “Who is he that condemns? It is Christ who has died, yea rather, is risen again, and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for us” (Romans 8:34). Jesus is not condemning you, does not condemn you, has not condemned you, will not condemn you.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께서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앞으로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Jesus said, “I didn’t come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John 3:17). Who is he then that condemns? It isn’t Jesus. He’s making intercession for you. And even as Paul interceded for Onesimus, so does Jesus intercede for you. “Father, I want you to receive them, no longer as sinners but as those who have been washed and cleansed as brothers, eternal sons of God. Father, I want you to treat them even as You treat me”. Glorified together with Him. Seated together with Him in heavenly places. The Father’s blessing and grace and goodness to us as though we were His sons. And then finally, “if they owe you anything, put it to my account”.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 장 17 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었거든 하물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하여진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이들을 당신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것처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그 분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와 선하심은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선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께 어떤 빛을 졌다면 그것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제가 갚으리이다”

And so all of my sins are charged to Jesus. All of my guilt is charged to Him.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f they owe you anything, put it to my account, I will pay. And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I love the last verse of that song,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for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but He washed it white as snow. And in His intercession for you and for me, He is asking that we receive with Him the honor and the glory of the eternal kingdom. Let all of our guilt be transferred to His account. All of our debt He has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에게로 돌려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과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당신께 무엇을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소서. 제가 갚으리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좋아합니다.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그 안에서 온전하리.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구하려 죽으셨네. 내 입술로 고백하리. 예수께서 모두 갚으셨네.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죄는 주홍빛 같은 흔적을 남겼지만 주께서 흰 눈 보다 더 희게 씻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가 이제 주님의 계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So Paul said, I have written it with my own hand. I will repay it.

however I will make mention of the fact that you owe me even your own life (1:19).

Evidently, Philemon was one of Paul's converts. Paul had the opportunity of sharing with him the glorious gospel of Jesus Christ and so he owed to Paul his conversion, that gift of eternal life that he had because Paul was the instrument God used in bringing him to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So if he owes you anything, put it on my account. However, I'll remind you that you owe me quite a bit, you know, even your very own life.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노라” 그러나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19 절)

분명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회개와 영생의 빛을 진 셈입니다.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이렇게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네 자신도 내게 빚진 것이 있다. 너의 생명을 내게 빚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Yes, brother, let me have joy of thee in the Lord: refresh my bowels in the Lord (1:20).

Now in our culture and in our modern use of the word “bowel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Paul would say such a thing as “refresh my bowels in the Lord.” But we've got to realize that we're dealing with a different culture and different concepts of cultures. And according to the beliefs, and they may not be so far from right, according to the beliefs of the culture at that time, the deepest emotions of a man were not felt in the head but were felt in the region of the stomach.

“□ □□□! □□ □ □□□ □□ □□□ □□□ □□ □□ □ □□□ □□□□ □□□ □□□□ □□”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성경에는 ‘ 창자’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서양인은 왜 바울이 ‘ 내 창자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라’ 라는 말을 하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다른 문화권 속의 다른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이 가장 깊은 감정을 느끼는 곳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뱃 속의 장기 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When the grief was extremely deep, it was felt down in the area of the stomach rather than in the head. When the experiences of joy hit the sublime

point, it wasn't an experience that went on in your brain; it was an experience that went on deep inside of you, in the deep areas of you which they call the bowels. And so we are told to have bowels of compassion and bowels of mercy. And now Paul is speaking about joy supreme or the deepest kind of joy. This is the kind I want that is felt in the deep area.

실제로 슬픔이 너무 깊다보면 그 슬픔이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너무나 크다보면 그것이 뇌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 깊은 곳, 우리가 내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경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극도의 기쁨, 또는 가장 깊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emotional so deep that you felt it sort of grab your stomach? You ever laugh so hard that you held your stomach? And because of that, they thought of the region of the stomach as being the area of the greatest joy and laughter and all. When you really get to laughing, man, it hurts your side. Doesn't hurt your head. You don't feel, you feel down here. And of course, we in our cheerful expressions and so forth, probably a carry over of the Victorian age, we're reluctant to talk about certain portions of the body, and thus it does sound a little foreign to us but the reference is to joy or sorrow or whatever in the deepest area of a man's being. And so it is emotions of the deepest sort that he is referring to here. Let me have joy.

여러분은 그와 같이 배를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깊은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배꼽을 잡고 웃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배꼽 부근의 내장영역이 가장 큰 기쁨과 웃음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이 웃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되지요. 머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머리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로 느끼게 되지요. 우리 서양인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향으로 신체의 특정부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되는 기쁨이나 슬픔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장 깊은 종류의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Having confidence in your obedience I wrote unto you, knowing that you will do more than I say (1:21).

Now this is known as a presumptive clause. And any of you who are aware of salesmanship knows what a presumptive clause is. You have laid out

all of the merchandise and here's a young girl and she's buying some things for her hope chest. And so she wants some towels. So she's in looking. She doesn't know if she's going to buy or not. But she's looking at towels and you show her the quality and you tell her how nice they are. And then you get out your little order pad and you say, Now which colors did you want? That's presumption. I'm presuming that she is going to buy them, so what color do you want, you know. Presumptive clause.

21 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절은 문법적으로 소위 ‘가정문’이라고 불리웁니다. 판매술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은 이 가정문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가게가 있습니다. 팔 물건들을 잔뜩 진열해 놓습니다. 한 아가씨가 혼수품을 준비하러 들어왔습니다. 타월 세트를 사려고 들어온 아가씨는 물건들을 둘러봅니다. 그녀는 아직 여기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타월세트를 둘러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에게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작은 주문서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색상을 원하시죠?” 이것이 가정문입니다. 그녀가 물건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을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가정문입니다.

So Paul is using this presumptive clause on Philemon. I have confidence in your obedience, having this confidence in your obedience, I wrote unto you knowing that you're going to do what I ask. You're even going to do more. End of subject of Onesimus.

Now the close of the epistle.

Now also I want you to prepare me a place to stay: for I trust through your prayers that I shall be given unto you (1:22).

So fix up my room, I'll be there by the grace of God before long.

There salute thee Epaphras, my fellowprisoner in Christ Jesus; Marcus, Aristarchus, Demas, Lucas, my fellowlabourer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1:23-25).

And so these same ones that Paul joins with his name in the greeting to the Colossian church are joined in the greeting to Philemon as we come to the close of this little personal letter.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정문을 빌레몬서에서 사용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너의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쓰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제 확실한 결말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제 서신의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 □□ □□ □□□ □□□ □□□□ □□ □□□ □□ □□□□ □□□□ □□ □□□□ □□□□” (1:22)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25)

골로새서에 나온 문안하는 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이 작은 서신서의 결말 부분에도 나옵니다.

Next week Hebrews chapters one and two.

Father, how grateful we are for the great high priest, Jesus Christ, who has gone into heaven for us to there stand as our representative and to make intercession for us. How thankful we are, Lord, that You have taken our case and You have chosen to represent us before the Father. We love You and we appreciate all You've done for us. And we thank You, Lord, that one day You will present us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Lord, You're so good, so good to us and we thank You for it. Amen.

Now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bless you this week abundantly. May you experience real growth in your walk with Jesus Christ. May the grace of God abound unto you in all things as you experience again the touch of God's love and of His Spirit as He strengthens you, and as He guides you, and as He helps you, and as He works in you that perfect work. In Jesus' name.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 장 2 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신 대 제사장, 하늘에 오르사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목을 지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서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그 언젠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어서 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